

한반도핵개발 문제 추리소설화한 베스트셀러

김진명 지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우리나라 핵개발 연구팀의 일원으로 활동하다 의문의 죽음을 당한 이휘소에 관한 얘기를 설록홈즈와 같은 집요한 성격의 기사를 통해 해결하는 추리형식의 소설.

우연히 알게된 불가사의한 사건에 갈등을 느끼게 하고 그것에 충돌하며 인과관계가 있음직한 일련의 사건들을 전체적인 흐름 사이에 소분규를 일으켜 장편소설의 진부함을 없애려 노력했으며, 독자로 하여금 흥미를 잃지 않고 읽게 하는 매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인식지점을 마지막까지 자연스럽게 지연시키면서 마지막까지 끌고 간 것은 초반부에 등장한 이용후라는 주인공과 별 관련이 없는 듯했고, 야쿠자와 마약문제·정신대문제 등의 스토리로 지루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었다. 실제 그의 행적과 의문의 죽음을 좀 더 상세하게 기술하면서 확실있는 믿음을 독자에게 심어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주인공은 모르고 있고 독자에게는 암시를 주는 작가의 비제한적 전지적 권한을 유감없이 사용한 삼인칭 주관적 서술에 의해 씌어졌고, 한번 읽다 보면 극적이고 웅대한 사건이 분명히 벌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숨막히게 느끼며 단숨에 읽어버릴 수 밖에 없는 대단히 흥미위주로 쓰여진 소설의 형식이 아닌가 생각되어진다.

중심인물인 이휘소는 독재에 항거하면서도 위기에 처한 조국의 평화를 위해 노벨상의 명

예와 영화를 버리고 우리나라 핵개발정책의 중심이 되어 불타는 애국심을 보여준 과학자였다.

이 소설대로라면 그는 아인슈타인과 비견되는 위대한 과학자이며, 미국이 자랑하는 아폴로 계획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면 수정케 만들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감동시켜 차관을 양보 받은 것이라든지 대통령에게 호통까지 치면서 유신철폐라는 각서를 받았다는 그의 신화 같은 사건들은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아직도 궁금한 것이 사실이다.

처음부터 이휘소에 관한 얘기들은 고증을 통해서라도 좀 더 정확하게 다뤘더라면 진실을 알 수 있었을텐데 이휘소에 대한 편협한 정보와 일관적이지 못한 소설의 구성으로 그에 관한 많은 사건들이 픽션인지 논픽션인지 구분이 안될 정도로 기술하여 무작정 위대한 과학자이며 애국자라고 인식하게 만들었다. 일본의 전성도발로 이어지는 마지막 권의 가상 시나리오의 참으로 가상에 지나지 않은 허구의 세계를 보여줬다. 소설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통쾌함을 맛보도록 해 일본의 비열함과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라는 미국에 대한 배신감을 불러일으킨다. 또한, 핵탄두를 발사함으로써 극적인 파격을 가져왔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도 우리민족의 선한 심성을 확연히 드러내는 것으로 끝맺는 결말은 이 소설의 압권이 아닌가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권순범 사건기사를 통해 과학자 이휘소의 위대한 애국정신, 독자로 하여금 긴장감과 끊임없는 흥분을 느끼도록 하면서 부각시키려 노력했다.

한국 현대사에서 잊혀진 얘기를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현실의 답답함과 독자적 핵무기 개발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의문의 죽음을 당했던 그가, 역사의 미궁속으로 영원히 사라지기 전에 재조명 돼야 한다는 당위성을 이 소설에서 시사해 주고 있다. 세계여론의 질시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핵무기를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축적하고 주변국들은 무서운 속도로 군비를 증강시켜 나가는데 왜 우리만 미국이라는 강대국의 그늘에 가려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지 하는 의구심을 말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자주국방을 위해 비핵화 선언은 무모한 것이었으며, 그것의 철폐만이 힘을 키우는 노력이며 당연한 현실적 대응이라는 점을 인식시키고자한 것이 작가의 근본적인 의도가 아닌가 생각되어진다.

주경희

경기도 광명시 광명1동 77-26 미성빌라 502호

「나는 왜 아버지를 잡아먹었나」

한마디로 재미있는 책이다.

‘자기들의 진화문제를 놓고 고민한 원시인들의 이야기’란 부제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이 책에서는 인류의 문명발달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처음에는 당황하게 된다. 보통 인류 문명의 발달을 이야기한다면 다분히 사실적이고, 마치 역사 교과서를 읽는 듯한 느낌을 줄 법도 하지만 이 책에선 전혀 그런 냄새가 나지 않는다.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면서도 수백만 년에 걸친 인류의 초기 진화과정을 압축시켜 아버지와 아들로 이어지는 두 세대에 걸친 이야기로 구성했기 때문에 긴장감과 재미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또 이 책에서 나오는 원시인들은 전혀 원시인답지가 않다. 그들의 고민과 사고는 현대인의 우리와 다를 것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주인공들은 100만 년이나 200만 년 전에 나무에서 내려온 원시인들이다. 아버지와 아들이고 몇몇 주의 사람들은 위험한 나무에서 내려와 안전한 동굴을 찾아 나선다. 그러나 동굴은 이미 맹수들의 집이 되어 있다. 또 변변한 사냥도구가 없어 겨우 동물들이 먹다 버리고 간 고기를 먹으며 목숨을 연명한다. 그야말로 위험에 완전히 노출된 상태에서 생명만 유지하는 단계일 뿐인 것이다. 그런데 어느날 누이동생이 맹수에 물려간 후 아버지가 불을 구해준다. 이때부터 이들의 생활은 달라지기 시작한다. 불을 이용해 맹수들을 쫓아낸 후 동굴에 보금자리를 만들고, 불로 끝을 버린

SEOULE DITORIALDE SIGNSCHOOLSE OULE DITORIALDE SIGNSCHOOLS E OULE DITORIALDE SIGNSCHOOLSE OULE DITORIALDE SIGNSCHOOLSE OULE DITORIALDE SIGNSCHOOLS

서울편집학스쿨

국내 최초 최대의 편집 교육기관

한국출판학회추천교육기관

사단법인 한국과학기술매체협회지정교육기관

문의(代) 672-1841 · 2 FAX · 671-8317 전철2호선 영등포구청역 5번 출구방향 100미터

편집 · 취재 기자 교육생 모집

국내 최초의 편집교육기관이 갖는 의미

- 최첨단 전자출판(DTP) 교육을 이룩해냈습니다.
- 전통이 깊은 만큼 교육이 알차습니다.
- 교육시설 / 컴퓨터 편집실(3개소) · 잡지사보편집실 · 단행본 학습편집실 / DTP실습실
- 전통이 깊은 만큼 취업관리가 체계적입니다.
- 취업률 96%에 대한 전원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취업 연계 출판 · 잡지사의 확보도 깊고 넓습니다.
- 문의 즉시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현직인을 위한 D.T.P교육

- 과정 : DTP(컴퓨터편집)
- 기간 : 2개월(매킨토시 실무교육)
- 대상 : 현직출판편집자, 편집학원이수자

편집 · 취재기자로 첫발을!



성공적인 첫 출발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신문 · 잡지 · 사보 · 출판 · DTP

편집 · 취재 요원이 필요하십니까?
지금 곧 서울편집으로 전화하십시오

- 모든 취업관리가 전산화 되어 있어 신속한 인력 공급이 가능합니다.
- 본원 교육은 현장적용 위주로 이루어지므로 채용 즉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본원 교육은 성실과 책임감을 특히 강조하고 있어 어느 연고를 통해 입사한 요원보다 성실합니다.
- 본원 발행 취업속보(취업 예정자 명단)를 받아 보지 못한 업체에서는 연락 즉시 우송해 드립니다.

본원 수료생을 채용해 주신 출판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창을 발견한 후부터는 사냥을 시작하게 된다. 또 고기를 익혀먹는 방법을 개발해 내고, 사냥을 따라나가지 않아도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되자 여자들은 집안에 남아서 역할 분담을 시작한다. 그리고 형제 자매간에 혼인하던 풍습이 다른 가족의 일원과 결혼하는 제도로 발전하게 되면서 이 원시사회는 큰 변화를 겪게 된다. 사회가 생겨나고 조직이 생겨나는 변화 속에 아버지는 활을 발명한다. 그러나 아버지는 결국 그의 발명품에 죽게 된다.

이 책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인류문명의 발달사를 압축시켜 놓은 것이다. 하지만 책장을 한장 한장 넘길 때마다 기발한 원시인들의 생각에 웃음을 짓게 된다. 또 복잡한 현대사회를 압축시켜 놓은 듯한 모습에 경이로움까지도 느끼게 된다. 특히 아버지의 끊임없는 의문 속에 탄생되는 발명품들과 제도들에서 우리 선조들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손은희

서울시 도봉구 방학3동 신동아 A.P.T 24동 1414호

이인화 지음 「영원한 제국」

라디오에서 각색해 방송할 만큼 소설 「영원한 제국」의 인기는 가히 폭발적이다. 확실히 「영원한 제국」은 재미있다. 그것은 이소설이

술한 복선과 치밀한 추리기법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대립구도의 설정 속에서 많은 역사적 사실을 단순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원시유학 중심주의와 주자학 중심주의의 대립, 퇴계학과와 율곡학과의 대립, 육서 중심주의와 사서 중심주의의 대립, 왕권 중심주의와 신권 중심주의의 대립, 이 모든 것을 내포한 정조시대 남인과 노론의 대립은, 시대에 따라 변천한 복잡한 과정과 의미를 단숨에 뛰어넘어 명확하게 구분되고 있다. 그만큼 선악의 구조도 분명하다. 정조와 남인은 선이며 노론은 악이다. 여기서 이미 역사적 사실과 시대적 진실은 의미를 상실한다. 그 의미는 소설의 재미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독자들에게 있어 노론이나 남인, 소론 등의 봉당은 같은 지배계층이며 그들의 당쟁도 봉건왕조체제의 유지라는 커다란 틀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또 정조를 포함한 그 어느 당파도 몰락해가는 조선왕조의 내적 모순을 해결할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 독자는 거대한 노론세력에 대항해 개혁과 왕도정치를 추구하는 정조와 남인세력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며 소설의 재미에 몰입하게 된다.

이와 함께 「영원한 제국」은 독자들의 지적 허영심을 충족시켜 주기에 충분하다. 이 소설은 지리할 만큼 율곡학과와 퇴계학과의 학문

적 차별성, 노론과 남인의 정치적 견해의 차이, 사서와 육서의 의미, 그리고 당쟁의 역사를 길게 설명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제국」이 조선조 당쟁사의 철학적 기반을 해명하고 있다는 과대광고를 가능하게 한다. 이밖에도 죽은 시인에 대한 조선조의 검시제도, 궁궐의 구조와 근세 서울의 지리, 주역의 원리와 같은 작품구조상 사소한 부분에서도 독자의 지적 욕구를 채워주기 위한 작업에 인색하지 않다. 물론 독자들에게 그것의 옳고 그름을 식별할 만한 능력이 없다. 단지 작가의 천재성에 감탄하며 당쟁사의 처절함 속에 깃들어있는 철학적 기반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뿐이다. 아울러 누차 감탄하듯이 치밀한 추리적 기법을 빼놓을 수 없다. 이백년에 걸친 당쟁을 하루의 사건에 따라 재구성한 능력, 한 규장각 대신의 죽음에서부터 영조가 남긴 「금등지사」를 차지하기 위한 정조와 노론의 암투에서 노론이 승리하는 과정이 밀도있게 그려지고 있다. 여기에서도 역시 「장미의 이름」이나 「바스커빌의 개」 등의 작품을 모방했다는 사실은 비평가에게 몰라도 독자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

몇몇 역사학자들 평론가들은 「영원한 제국」을 깎아 내리기에 여념이 없다. 물론 그들의 지적은 옳다. 「영원한 제국」은 철저한 남인의 시각에서 그려지고 있다. 이는 작가 자신이 영남 남인의 지역적 기반 속에서 성장했다는

사실 때문에 수백년에 걸친 당쟁의 폐해가 현재까지 지속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까지 자아내게 한다. 또 민란과 같은 당시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민중의 지향이 배제됐기에 자칫 역사 허무주의로 빠질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은 「장희빈」이나 「한명회」와 같은 기존의 TV사극이나 야담류 소설을 한단계 뛰어넘어 부분적으로 역사의 흐름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어쨌든 많은 독자가 이 소설을 찾고 있다. 혹자가 말하듯 그것이 더욱 역사의 진실을 왜곡한다는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말이다.

소설적 재미와 역사적 진실 중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 이것이 만나야 할 지점은 어디일까? 몇몇 뛰어난 작품을 제외한다면 우리는 종종 이러한 물음에 직면하게 된다. 「영원한 제국」은 순간적으로 「반짝」하는 소설일지는 모르지만 소설적 재미가 역사적 진실에 대한 접근의 결함을 보완하고 있는 작품이다. 비록 몇년 후에 소설적 재미와 함께 역사적 실체에 근접한 작품이 나온다 하더라도 현재로서 「영원한 제국」의 재미를 느껴볼 만하다.

윤용민

충북 청주시 모충동 411-9 25동 3번

오직 기자만을 양성합니다

취재 편집기자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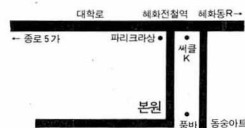
연수생들의 현장 취재 실습.

- 현장과 동일한 취재 및 기사작성 실습
- 매킨토시를 이용한 전자출판(DTP), WP교육
- 현장견학: 신문사, 잡지사, 출판사, 제판 인쇄소
- 연수생들을 위한 하계 동계 (논문인 세미나) 개최
- (기자승년의 밤) 행사 및 '올해의 기자상' 시상식
- 전공 및 적성에 맞는 취업처 전원 취업 추천

24시간 자동상담전화
735-4450(111X)

취재 편집 기자 연수생 모집

연수과정: 취재편집기자 실무
연수기간: 정규 3개월 과정
모집인원: 20명 정원
입학자격: 대재 및 대졸(전공무관)
입학상담: (02) 747-199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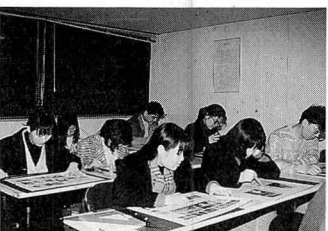


한국저널리스트아카데미
KOREA JOURNALIST ACADEMY
서울·종로구 동숭동 1-51 수산빌딩 3, 4층
TEL: (대) 747-1991-3 FAX: 747-1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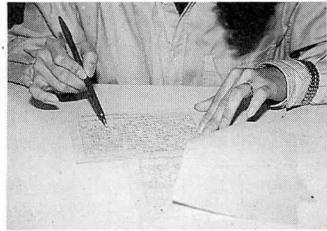
“취업 현황으로 말하겠습니다!”

국인서관 자연과 어린이/전선영(인하대 가정관리 94졸)
학원사 주부생활/이승희(경희대 국문 94졸)
한신출판사 기획편집부/권은주(성심여대 국문 94졸)
영상음반/박기봉(중앙대 축산 94졸)
포토유직/이미선(동국대 국문 94졸)
한국일보 관리국/김용관(충북대 경제 93졸)
모터사이클/김성철(광주대 도서관 94졸)
인테리어매선/유미영(덕성여대 독문 4년제)
음악사랑/김진희(연세대 신학 94졸)
일간스포츠 명예기자/강미미(동덕여대 식목 4년제)
아이센스/권미경(장안전문 경영 94졸)
(주) 이매드 커피라이터/최필선(건국대 불문 94졸)
의료신문사/이경아(동덕여대 국문 94졸)
통신전자신문사/정진경(광주대 금융 94졸)
BANKER/파선영(덕성여대 도서관 94졸)
시민문화신문사/윤진미(방송대 교육학 3년제)
스포츠골프/이은정(이화여대 체육 94졸)
국제화보/김태진(전주대 국문 94졸)
프로그램세계/민은숙(상지대 사회 94졸)
공간/주정관(장안전문 행정 94졸)
라벨르 어시스턴트/이상희(덕성여대 독어 4년제)
FEEL 취재 아르바이트/김성림(성균관대 아동 94졸)
약국/이명녀(강릉간호전문 간호 94졸)
포토유직/고수경(이화여대 도서관 94졸)
한신출판사/이명숙(강원대 정외 94졸)
아름다운우리웃/최은성(동덕여대 경영 93졸)
현암사/정희용(연세대 생물)

(주) 제비표포인트 사보/한상미(성심여대 국문 93졸)
금융/유일지(덕성여대 사회 94졸)
교육출판사/김두림(인하대 국문 94졸)
수자원환경신문사/박현희(방송대 경영 3년제)
모터사이클/윤금심(방송대 불문 4년제)
노원신문사/남경혜(한양대 일문 94졸)
어패럴뉴스/신지선(서울여대 문헌 94졸)
탁구/나윤주(동덕여대 체육 94졸)
유아월간신문/백지혜(광운대 법학 93졸)
주니어/서정민(홍익대 산업 94졸)
MBC-TV 장학퀴즈 스크린러/정임숙(중앙대 일문 94졸)
세정신문사/탁연식(순천향대 무역 93졸)
액센트무비/남순금(중앙대 철학 94졸)
한신문화사/김성진(명지대 영문 93졸)
약사신문사/서승자(방송대 국문 94졸)
양우출판사/송원정(건국대 불문 94졸)
삼영경제신문사/임세영(한국외국어대 중국 94졸)
크리스찬라이프/전계진(덕성여대 사회 94졸)
역사학계/박수정(방송대 국문 3년)
미포신문사/이은영(충실대 사학과 94졸)
삼영경제신문사/권경임(경북산대 의상 94졸)
커리어코리아/김효화(강원대 경영 94졸)
통신전자신문사/박세준(동양공전 94졸)
(주) 중앙교육연구원/이영경(성균관대 아동 94졸)
아리비출판사/유미정(경기도대 국문 94졸)
의사신문사/김동희(부산경성대 정외 94졸)
* 이상 94년 1/4분기 취업현황 중에서 발췌. 이외의 취업처 명단은 본원 게시판이나 취업포도실에 항상 비치되어 있습니다.
취업포도실: (02) 747-1993



개성을 살린 편집(paste-up) 실습.



기자작성과 교정·교열.